

# B·L·O·C·A·L·L·Y

2019 SUMMER  
VOL. 01 창간호

부산생활문화매거진 **브로컬리**

## COVER STORY

**광안** :넓을 광(廣) 편안할 안(安)

너르고 편안한 터, 광안동.

광안동은 흔히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는 곳으로 여겨지지만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직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브로컬리 창간호에서는 관광지로서의 광안동이 아닌 광안동부터  
4동까지 사람이 사는 '동네' 광안동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발행일 2019.07.12.

발행인 강동수    감수 이미연    PM 안재홍

기획 하영문, 이보라, 박성관

편집실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 TEL 051-257-8038

통권 1호    ISSN 2671-910X

발행처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13(동광동)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부산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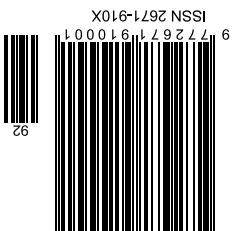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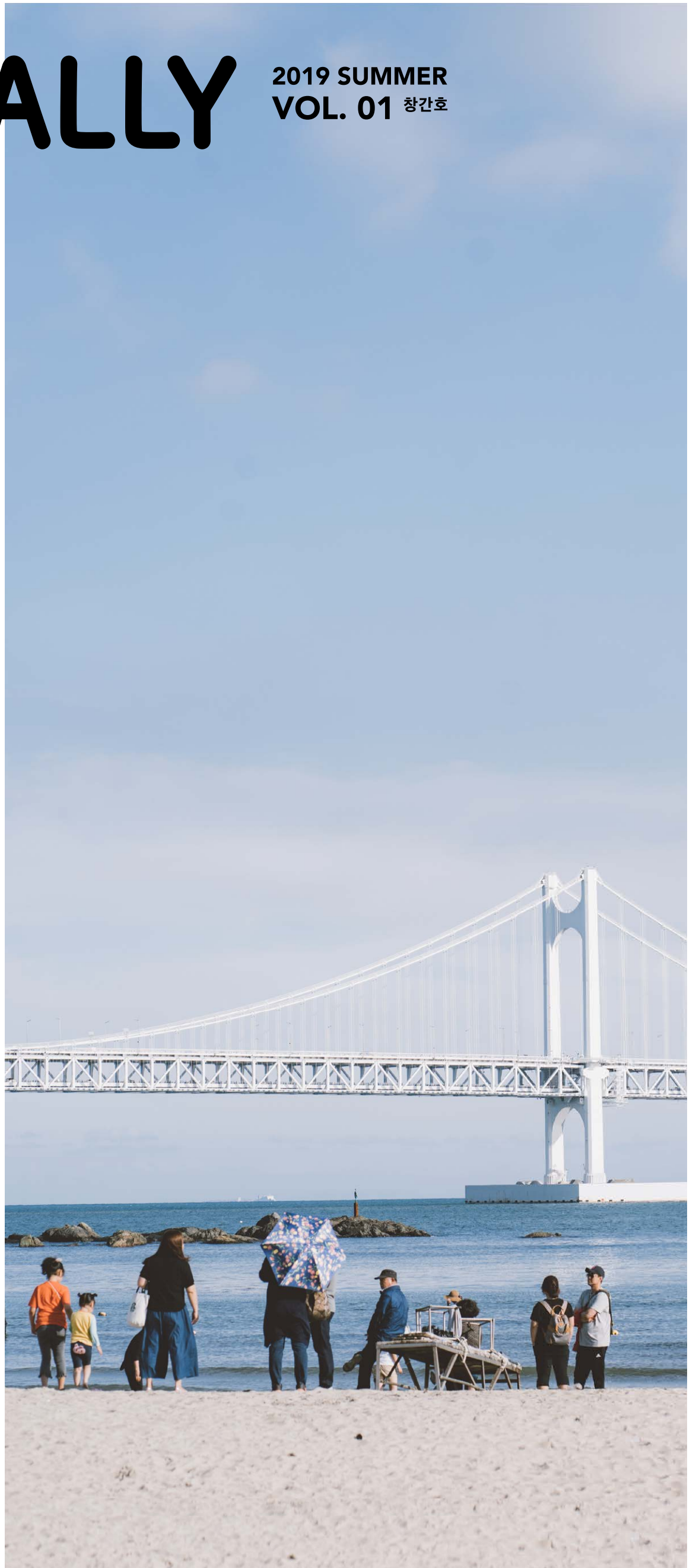
후원 부산광역시

디자인·제작 순간과영원 TEL 051-244-7504

발간인 강상현    편집·책임에디터 공지훈

인터뷰·에디터 권혁제, 홍슬기    번역 김혜민

편집디자인 정현실    별지디자인 송수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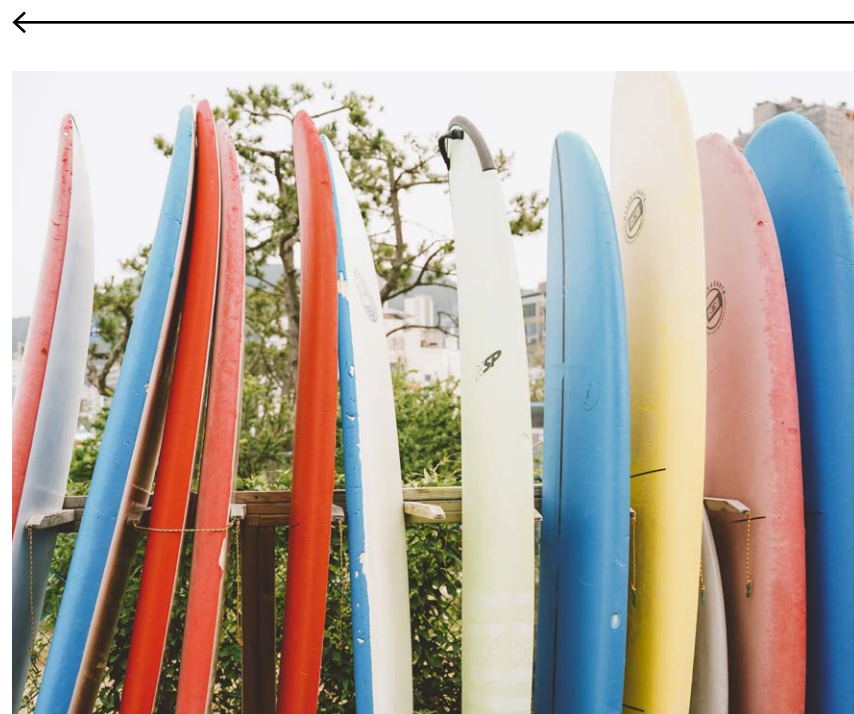
**B·L·O·C·A·L·L·Y** 2019 SUMMER VOL. 01 창간호



**브로컬리 투어** 04-07  
비로컬러가 제안하는 동네 여행 코스, 브로컬리 투어를 따라 다 같이 광안동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요?

**3번 테이블** 08-09

주인, 손님, 음식과 함께한 식당의 세월, 3번 테이블에서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작은 가게를 소개합니다.



**에브리바다** 10-13  
바다를 빼놓곤 논할 수 없는 바다의 도시 부산. 부산 사람이 이야기하는 나, 너,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바다

**B 스켓** 16-17

매 호 가볍게 즐기는 비스켓 한 조각, 여러 장르 예술가들의 일상을 좇아 부산의 모든 카테고리들을 열어봅니다.

**BUSAN NER** 14-15

From Busan, To Busan. 안과 밖에서 부산을 바라보는 부산너의 단상. 부산, 네!

**OO씨의 이중생활** 18

퇴근 후 가면을 벗고 자유를 입는 시간. 평범한 이웃의 이중생활을 만나봅니다.



**날아라 동아리** 19

일상에서 예술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생활문화 동아리를 응원합니다. 관객에서 주인공으로 날아라 동아리!

**보라카이** 20

부산의 생활문화센터 14곳을 한 장에 담았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7곳이 더 늘어날 예정이니, 함 보라카이~

**별지 B·L·O·C·A·L·L·Y TOUR**

브로컬리 투어 추천 코스와 광안동 주요 스팟을 한눈에 볼 수 있는 MAP. 창간호의 광안동을 시작으로 동네의 지도를 모으고 이어 부산 전체 지도가 완성되는 날까지 브로컬리를 지켜봐주세요!

**PM's LETTER**

너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어준다 했던가요. 부산은 다양한 색으로 존재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미처 가까이에는 소중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내가 부산의 숨은 가치를 알아봐 주었을 때 부산은 나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 줍니다.

- #1 부산 로컬리(BUSAN LOCALLY)  
부산의 신선(?)한 로컬리티를 담기 위해 건강채소 BROCCOLI의 후광을 등에 업고 B·L·O·C·A·L·L·Y가 태어났습니다. 여름에 창간호를 내놓게 되면서 부산과 바다의 연결고리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 #2 부산에 206개나 되는 동네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는 어디인가요?  
우리는 첫 번째 부산의 관찰지역으로 광안동을 선택하였습니다. <브로컬리 투어>에서 광안리 바다를 끼고 있는 광안동의 골목골목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동네 이야기에 음식이 빠지면 섭섭합니다. 광안동 어귀의 한 평범한 식당 <3번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지만 평범하지도 않습니다. 음식은 본디 사람이 만드는 것. 포커스는 자연스레 한동안 주인공 행세하던 음식에서 조연으로 밀려났던 사람으로 맞춰져 갑니다. 브로컬리의 상징적 프로그래인 <에브리바다>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바다, 모두의 바다. 낭만과 여행을 #해시태그로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산사람에게 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부산바다에는 물만 고기반이 아닌 물만 이야기 반이 있습니다. 그 속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 #3 부산에 사는 사람은 모두 부산사람입니다. 너와 나 모두. 5만 명이 넘는 외국인인과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또 외국에 살고 있는 부산 출신도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부산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BUSAN NER>에서 부산사람들을 만납니다.
- #4 부산의 모든 카테고리(B·S·C·A·T·e·g·o·r·y)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비스켓>처럼 가볍게 혹은 바삭하게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지금부터는 양복을 벗어던지고 내면의 열정을 꺼내어 다 같이 복면달화가 되어 봅시다. 낮에는 평범한 회원도 밤에는 거리의 버스커버스커! <OO씨의 이중생활>을 몰래 들여다 보았습니다. 브로컬리는 일상의 아티스트를 찾습니다. 비상을 꿈꾸는 수많은 병아리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날아라 동아리>의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부산생활문화매거진 브로컬리는 한성1918에서 만들어졌습니다.

**NOTICE**

부산생활문화매거진 브로컬리는 독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올가을에 발간될 브로컬리 2호에서는 OO씨의 이중생활과 부산너 코너의 소재 제보와 기고를 기다립니다. 제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 (1918.bscf.or.kr)로 직접 접속 후 게시판의 기고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OO씨의 이중생활 제보하기**  
특별한 물건을 수집하는 사람, 색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 등 모든 장르의 괴짜들을 제보해 주세요.

**부산너 기고 안내문 보기**  
\*The BUSANNER foreign language version guide is available on the website. (English, 中文, 日本語, Русский, español, العربية)  
문의 051-257-8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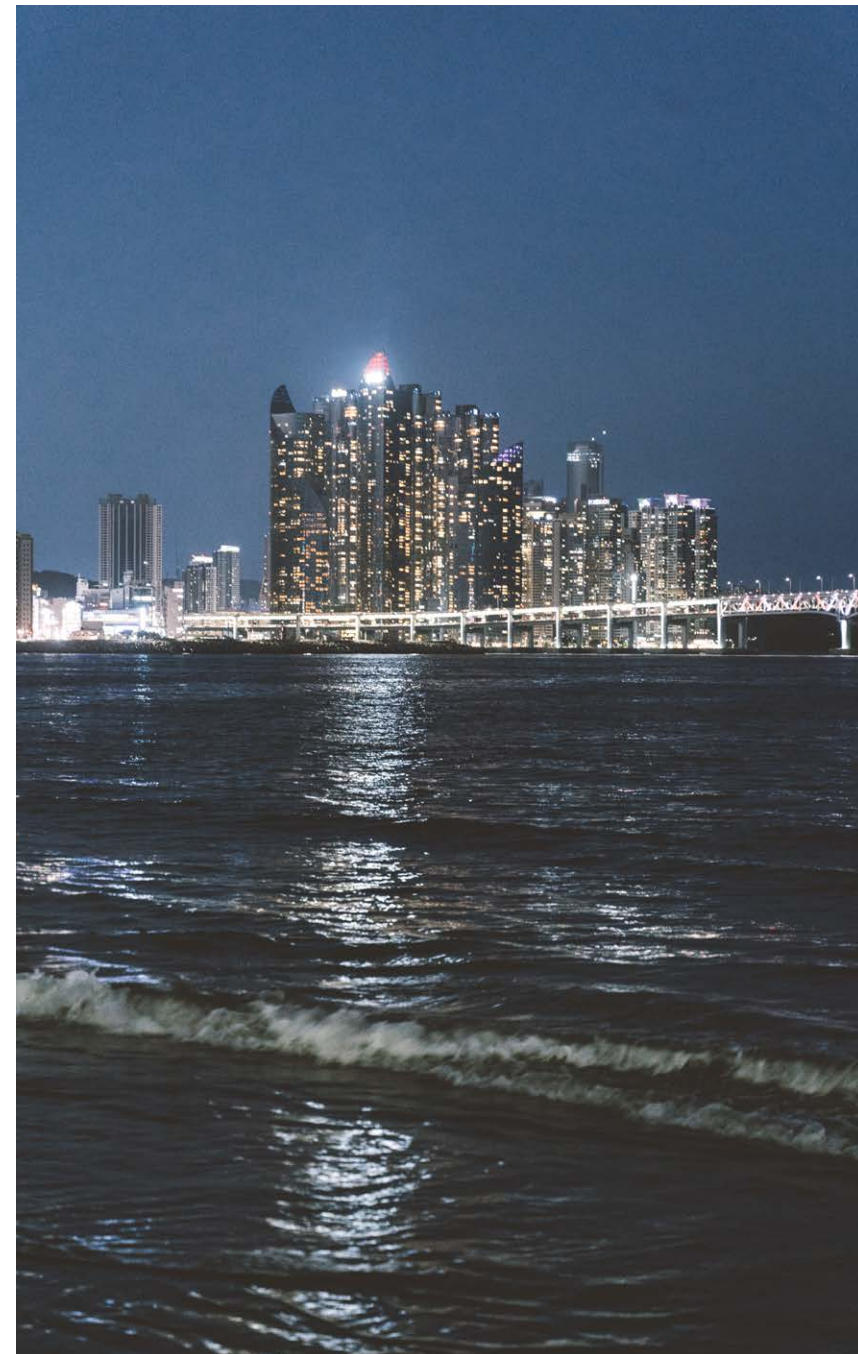


# 비로컬러가 추천하는 광안동 동네한바퀴

글 장현정 (호밀밭 출판사 대표)    사진 하영문



세홍시장을 따라 걸어 내려가면 보이는 광안대교와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동은 평범하고 오래된 주거지역이다. 양쪽으로 남천동과 센텀시티라는 부산의 대표적인 신도시들이 들어서면서 많은 돈과 사람들이 들고나는 동안, 광안동은 예나 지금이나 비교적 비슷한 모습으로 거기에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늦잠을 자고 여유롭게 일어나 편한 옷차림으로 금련산역을 향하기로 한다. 햇볕 냄새는 고소하고 바람도 시원하다. 도시철도 2호선 금련산역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는데, 출구로 나가면 바다, 짝수 출구로 나가면 산 쪽이다. 광안동은 이 금련산역에서 광안역을 지나 수영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걸쳐있다.

광안동과 남천동의 경계에 재래시장인 세홍시장이 있다. 나는 이곳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을 사랑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뛰어다녔던 곳이라 익숙하고 오래 보아온 풍경이라 정겹다. 이 풍경은 대로에서 방향을 틀었을 때 철로를 사이에 두고 갑자기 나타나 사람을 경탄케 하는 미포의 바다풍경과도 닮았다. 둘 모두 내가 부산에서 손꼽아 사랑하는 풍경들이다. 지금은 유럽식 돌바닥 길로 새 단장해서 차로 지날 때면 많이 덜컹대는데 이 덜컹대는 다시 푸른 바다의 출렁임과 어울려 묘한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 바닷가로 향하는 그 길의 양옆에서, 수십 년이 넘게 터를 지켜온 시장 상인들이 손님들과 어울려 느리게 움직이고 오랫동안 수다를 떨며 깔깔댄다. 평화가 먼 곳에 있을 리 없다.

편집자 주: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글의 맛을 살리기 위해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지 않은 용어 및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질녘 어스름의 세홍시장. 인근의 화려한 상가가 생기고 없어지는 동안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광안동의 색을 지키고 있다.

방향을 돌려 산 쪽을 바라보면 성분도병원이 보인다. 유치원과 수녀원도 같이 있는데 1966년에 세워져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따스한 위로와 공감의 시로 잘 알려져 있는 이해인 수녀가 계신 곳으로도 유명하다.

성분도치과병원의 뒷길은 오래된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다. 금련산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지금은 부산아시아영화학교와 한국영화아카데미가 들어서 있는 옛 공무원교육원 자리가 나온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오면서 이곳도 차세대 아시아 영화의 요람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이제는 한국 영화의 대가가 된 김의석, 봉준호, 허진호, 최동훈, 임상수 등이 한국영화아카데미 출신이다.

다시 골목길을 따라 광안 1동 쪽으로 이동한다. 내 모교인 동아중학교를 지나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중간에서 한국 천주교의 성지인 '장대골순교성지'와 마주치게 된다. 병인박해 당시 바닷가 끝인 이곳에서 수많은 천주교 교인들이 처형당했다. 자신의 신념과 시대가 불화하여 고통받고 외로웠을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떠올리면 마음이 경건해진다.

광안 4동 벽화거리. 밤 모습의 큰 바위가 있었다 하여 호암골이라 불리었다.



광안 4동 골목에서 바라본 금련산



동아중학교에서 장대골순교성지로 향하는 오르막길





금련사 관세음보살 석탑 아래의 작은 불상들



수영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득 메운 야구공 야구 명문답게 방과 후에도 야구 연습이 한창이다.



오후 9시경의 수영교차로. 낮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화려한 거리가 인상적이다.

# GWANGAN-DONG LOCAL TOUR



근처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었다는 절 금련사도 있다. 원래 이 일대는 예로부터 좌수영이라 불리던 수군들의 주둔지였고 이 절이 지어진 1972년에도 군부대가 있었다. 독일군이 주둔하며 그 특유의 정확성으로 지리를 측정했던 측지부대가 있었고 이후 군수사령부가 들어서기도 했다. 지금도 택시기사들에게 측지부대로 가지고 하면 이곳으로 데려다준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래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지만 그중 아래빌은 원래 해군 가족들이 거주하던 해군칠성아파트였고 그 밖에도 많은 군인아파트 자리가 남아있으며 금련사 바로 옆에는 여전히 국방기술품질원 부산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금련산과 맞닿은 이곳에서 다시 발길을 돌려 내리막을 걷는다. 홈플러스 쪽으로 향하는 이 예쁜 길은 새롭게 부산의 벚꽃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오밀조밀한 가게들이 들어서 있는데 마라탕으로 한창 인기몰이 중인 마라키친을 비롯해 오래된 부산의 대표 통닭집 칠성통닭 등 조그맣지만 저력 있는 맛집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수영역 근처 수영초등학교는 야구를 사랑하는 부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곳이다. 추신수, 이대호 등을 배출한 전통적인 야구 명문학교로 지금도 전국 야구대회를 압도적으로 제패하고 있는데, 가끔 머리가 복잡할 때 이곳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의 뛰어노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곤 한다.

큰길을 건너 수영로터리 광안 3동 쪽으로 향하면 불쑥 사람이 많아지고 번화가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공창골목으로도 유명한 이곳에는 이제, 공창뿐 아니라 호호불닭발, 구구구 양꼬치, 오돌뼈, 엄용백 돼지국밥, 막걸리집, 자갈치횬집 등 이루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종류의 가게들이 즐비하다. 밤이 깊어갈수록 흥공 야시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회포를 풀기 위해 모여든다. 근처 수영역이 환승역이기도 해서 서로 다른 동네에 사는 이들이 모였다가 헤어지기도 좋다.

물론 이 동네 토박이랄 수 있는 나는, 지하철 막차 시간에 구매받지 않고 마음껏 마신 뒤 두 발로 걸어서 귀가한다. 오늘도 그럴 참이다. ☺

수영초등학교 정문 근처에는 한 유명 맛 칼럼니스트가 부산에서 가장 맛있는 야구점 집으로 꼽은 미소야구점이 있다. 모든 '진짜' 맛집이 그렇듯, 이곳도 오래됐으며 소박하고 정갈하다. 마침 해가 뉘엿뉘엿 지려는 참이라 출출하다.





# 국수보다 맛있는 이야기가 있는 곳 수영회국수

글 장현정 (호밀밭 출판사 대표)      사진 홍석진 (포토그래퍼/영상 작가)

세상은 돌고 돈다. 한때 모든 걸 뒤집을 것처럼 혈기왕성했던 나와 동네 친구들은, 이제는 사이좋게 나이 먹어가며 '굵고 짧게' 말고 국수처럼 '얇고 길게' 사는 게 답이라며 깔깔대고 취해간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어젯밤의 추레했던 말들을 주워 담으며 혼자 얼굴 빨개지고, 그래도 쓰린 속은 달래야 하니 해장음식을 찾는다. 그럴 때 나는 종종 슬리퍼를 신고 걸어서 수영회국수를 찾곤 했는데, 그리고 보면 나는 선주후면(先酒後麵)의 찬란한 전통을 지키는 모범 취객인 셈이다. 30년 이상 된 단골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식당. 마침 옆 탁자에도 나 같은 손님이 홀로 앉아 손수건으로 목덜미며 이마를 닦아가며 후루룩후루룩 국수를 들이켜고 있다. 그런데 사실 회국수는 전통적인 해장음식에 속한다고 보긴 어렵다. 그런데도 나는 숙취가 있을 때마다 왜 자주 이 음식을 떠올리는 걸까. 10년 가까이 드나들었지만 그 비밀을 이번엔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답은 매실이었다. 매운 데다 비빔음식이지만 양념에 질 좋은 마늘과 매실청이 무지막지게 들어가 있으니 해장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거다.

사실 취재과정이 만만치는 않았다. 사장님 부부가 워낙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꺼려하셨다. 아주 예전에 모 신문에 한 번 기사가 실렸다가 말 그대로 식겁하셨다고 했다. 부산 시내 전역에서 위치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바깥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단다.

"돈 떠나서 마 골병 들 뻔 했다 아이가. 그 뒤로는 MBC고 수영구청이고 뭐 누가 취재 온다 카면 오기만 오라고 마 카메라 다 때리 뽀사뻘다캐지."

사장님 부부, 특히 어머니의 웅변이 대단했다. "미디어에서 다루면 사람들이 재미 삼아 한 번 들러서 사진이나 찍고 가지. 나는 그런 손님들은 하나도 안 반갑거든. 와도 안 와도 그만이고, 사실은 안 올수록 좋아. 그런 손님들 때문에 진짜 단골들이 국수 못 먹고 돌아가게 되면, 그거는 아이거든."

사장님의 철학은, 좋은 음식은 꾸준히 때때로 생각나야 하고 좋은 손님들은 그때마다 찾아와야 하며 그래야 좋은 식당이 욕심 없이 소박하게 장사할 수 있다는 것.

손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사장님 부부와 한 시간 남짓 수다를 떨고 있자니 이분들은 도대체 달관한 현자인가, 하는 느낌마저 풍겼다. 일본 음식만화나 <심야식당> 같은 드라마에 이런 캐릭터들이 곧잘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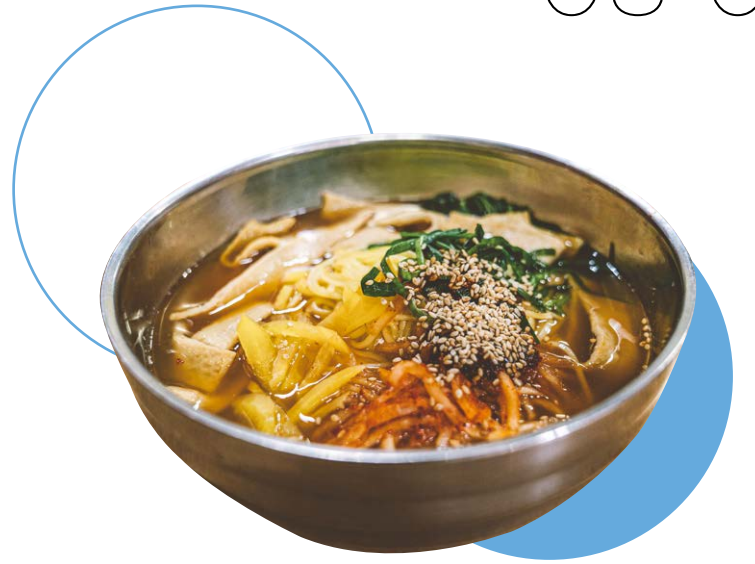
요약하면, "손님이 왕이라고? 웃기고 있네. 우리 식당에서는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이다. "손님이 이쁜 짓을 해야 주방에서 보고 참기름이라도 한 방울 더 넣어주는 법 아이겠어요? 인사 한 번 잘 하고 말 한 번 이쁘게 하면 그걸로 훨씬 큰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뽀뽀하게 갑질하는 손님들도 많아. 명칭한 놈들."

<수영회국수>의 대표 메뉴는 식당 이름처럼 회국수(보통 7천 원)다. 사전에서는 회국수를 '부산지역에서 회를 넣어 만들어먹는 국수의 일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싱싱한 가오리회와 양념장에 국수를 비벼먹는다. 오뎅이 담긴 뜨거운 멸치육수를 중간 중간 훌쩍이면서 저극받은 입술과 목구멍을 달래면 뒷맛에서 감도는 달큰한 매실 향과 함께 한마디로, 사람 죽인다. 부추가 가득 담긴 온국수도 담백하고 순해서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이면 더욱 입맛을 다시게 한다. 수영회국수는 무엇보다 재료의 질이 최상이다. 순창고추장과 대저상추, 무엇보다 굵고 큰 매실이 듬뿍 들어간 양념에 구포국수를 쓴다. 구포국수가 워낙 유명하지만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구포국수라고 해도 다 같은 구포국수는 아니란다.

"박스에 있는 구포국수라는 글자만 보면 안 돼. 마트에 있는 건 대부분 거북표나 쌍방울표 같은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30년째 청어표만 쓴다."



편집자 주: 글쓰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글의 맛을 살리기 위해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지 않은 용어 및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어표 구포국수에는 치자가 들어가 있어 면발이 노란색을 띤다. 계란도 30년째 같은 삼촌이 가져다주는 걸 쓰고 있다. 믿고 거래하기 때문에 계란 값이 올랐다고 하면 그렇게 쳐주고 내렸다고 하면 또 그런 줄 안다. 매실도 마찬가지로 30년째 거래한다. "내가 좋아하는 매실이 어떤 스타일인지 딱 아니까 챙겨놓거든. 나는 자질한 매실은 안 써." 하시면서 울해 매실이 잘됐다고 엄청 좋아하셨다. 회국수의 화룡점정이랄 수 있는 가오리도 중요하다. 가오리는 흥어과라서 잘 숙성해야 한다. 여기에 매실 엑기스(효소액)를 주로 한 양념이 들어가는 것이다. 숙성, 양념 모두 사장님이 직접 하신다.

수영회국수 여장부 사모님의 고향은 서부 경남 고성이다. 부친이 고깃배만 50년을 탔고 모친은 자갈치시장에서 40년 넘게 아나고 장사를 했다단다. 사장님이 어릴 적부터 회에 대해 잘 알게 된 것도 이해가 간다. 어릴 때는 남부민동 송도상고 바로 밑에 살았다. 부모님이 원산냉면에서 육수 낼 때 쓰는 닭을 대주고 돈을 벌었다. 국수와 육수에 대해서도 일찍이 감을 잡은 셈이다. 결혼하면 서 남편 따라 남포동으로 왔다가 나중에 민락동으로 왔다. 처음에는 수영 나이트클럽 앞에서 실내 포장마차 같은 걸 차리고 밤 장사를 했고 이후로 30년을 이곳에서 보냈으니 자산이야말로 밤 문화의 도사라며 자긍심이 대단하다. 지금 식당에 붙어있는 간판은 초창기부터 쓰던 것을 2002년 월드컵 때 지극 자리로 옮기면서 가지고 온 것으로 지난 30년의 역사가 그대로 스며있다. 밤 장사를 하다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칼국수 붐이 일어났다. 대통령이 칼국수 먹는 장면이 TV에 자주 나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거다 싶었다. 실내포차를 때려치우고 가오리회와 매실 엑기스로 무장한 회국수를 연구하게 된 계기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레시피가 완성됐는데 그 실험대상은 수영로터리 인근을 오가는 건달들이었다. "개들은 1년 365일 바깥에서 식사를 해결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식당이 맛있고 어디는 파이라는 걸 빠삭하게 아는 기라. 음식이 개들한테 인정받으면 다 됐다고 생각했지. 건달들 입에서 오케이 나오면 말 그대로 대박 나는 기라." 관건은 양념을 어떻게 신선하면서도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천연 식재료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답을 찾은 게 매실 엑기스였다.



10남매의 장녀로 동생들 보살피며 살아온 세월이, 돌아보면 꿈만 같다. 부산문화재단 아카이브에 기록되어있는 서양화가 김명수(1946년 생)가 사촌오빠이고 김종세 전 민주공원 관장이 친동생이다. 아이들도 이제는 다 커서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있다. 남에게 싫은 소리 안 듣고 해코지 안 하면서 근면성실하게 삶의 큰 숙제들을 다 해결해왔다. 그 자부심이 정직하고 건강한 국수 한 그릇에 그대로 배어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지갑을 연다. 카드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간 현금을 꺼내며 묻는다. "요즘 같은 시대에 웬만하면 이제 카드결제기 좀 준비하시지." 돌아온 대답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내가 사실 많이 못 배웠거든. 옛날 어른들은 가시나가 배워서 뭐냐고 했다 아이가. 지금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현금영수증이 우짜고 하면 마 머리가 뽀개질라칸다." 사실은 괜찮다. 나는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들, 오랜 시간 영업해온 식당 등에서는 일부러 카드를 안 쓴다. 수영회국수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식당들은 공통적으로 오래되고 소박하며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다. 무엇보다 한두 마디의 대화에서도 사장님의 진심이 느껴지고 삶에서 우러난 목직한 철학에서 배울 바가 많다. 사장님 부부가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원할 때면 언제든 그 달큰한 매실 향을 실컷 맡을 수 있다면 좋겠다. 🍓





먼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어린 시절엔 아버지를 따라 매일 날씨 확인하고 사냥에 낚시 다니는 게 일이었다. 릴 낚시 배터리를 가지고 쫓아 다녔고, 같이 투망 던지고 오리도 잡고 그랬다. 강이며 바다며 다 내 놀이터 같았고, 자연스럽게 물에 대한 자신이 생겼다. 해양 스포츠는 전반적으로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덕분에 난 어릴 때부터 기상의 변화나 흐름에 도가 텅다. 수영부터 시작해서 국내에서 가능한 해양 스포츠는 다 해봤다. 88올림픽 윈드서핑 선수 출신 남편과의 결혼 전후로, 광안리와 송정에 윈드서핑 샵을 차렸다. 특별한 계기와 이유가 아니라 삶 자체가 항상 바다와 함께였던 것 같다.



부산 서평의 성지가 된 송정해수욕장



부산 서평의 성지가 된 송정해수욕장

# 바다, 서핑 그리고 삶

송정서핑학교 대표 서미희

인터뷰·글 공지훈

사진 하영문, 송정서핑학교 제공

"One wave! Just one wave!"

영화 '폭풍속으로'에서 주인공 보나는 친구이자 자신을 쫓는 FBI요원인 자니에게 체포당한 후, 마지막으로 파도를 한 번만 타게 해 달라고 애원한다. 폭풍 속의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지만, 보나는 말한다. "좋아하는 것을 하다 죽는 건 비극일 수 없다"고. 영화라는 허구의 스토리 속 장면이었지만, 죽음과도 맞바꿀 스포츠의 매력이 과연 무엇인지 늘 궁금했다.

'어딘가 익숙하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는 롱보드, 마이애미 해변, 파란 눈과 금발머리가 연상되던' 이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은 이제 부산의 바다에서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평생을 부산의 바다와 함께했던, 부산 서핑의 선구자인 서미희 대표는 송정을 '국내 서핑의 성지' 중 하나로 만든 장본인이다.

아마 그녀라면 내 오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에게서 부산의 바다와 서핑, 그리고 서퍼로서의 삶에 대해 들어봤다.



서미희 대표는 송정서핑학교를 송정의 랜드마크로 키워낸 공로로 해운대구청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부산이 대표적인 해양도시이기는 하지만, 당시는 해양스포츠에 대한 저변이 넓지 않은 시기였다. 윈드서핑은 어떻게 잡히게 됐나.

내가 최고로 팔자 세다는 백말 따라 그런지,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하고 싶어 했다.(웃음) 남들이 못하고 안하는 것들을 내가 해내는 게 좋았다. 어릴 때부터 항상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도전했다. 펜싱, 스키를 비롯해 안 해본 운동이 없었지만, 쉽게 찾아지지는 않더라. 뭐든 잘해내긴 했는데, 뭐랄까 딱 이거다 하는 느낌이 없었다. 그러다 88년도에 윈드서핑을 처음 알게 됐는데, 엔진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게 너무 신기했다. 하지만 당시는 프로선수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끈질기게 수소문한 끝에 광안리에 있던 폴서비스라는 동호회를 알게 됐고, 거기서 84년도 올림픽에 나갔던 국가대표 선수를 만나 제대로 배웠다.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국내 윈드서핑 전국대회에서 1위 입상도 수없이 많이 했다.

그렇게 잘하는 윈드서핑을 접고 서핑을 시작한 이유가 뭔가.

송정에서 윈드서핑 샵을 시작했을 때 파도 때문에 교육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땐 정말이지 파도가 원수같이 느껴졌다. 그러다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우연히 어떤 외국인이 와서 서핑 하는 걸 보게 됐다. 당시 윈드서퍼들이 파도가 너무 커서 철수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외국인이 멋지게 파도를 타고 있는 거다.

송정에서도 서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원수 같았던 파도가 그땐 정말 멋져 보였다. 이거다 싶었다. 그길로 미련 없이 윈드서핑을 접었다. 시쳇말로 서핑에 완전 꽂힌 거다. 그 뒤로 미친 듯이 서핑만 했다.

그러다 1999년 5월쯤 큰 남서풍이 왔는데, 오후 4-5시쯤 되니까 바람이 확 죽으면서 놀렸던 파도가 속 풀려왔다. 파도를 보자마자 보드를 들고 뛰쳐나갔다. 당시에 윈드서퍼들과 교육생들이 철수하고 있다가 내가 파도 타는 걸 자연스럽게 보게 됐다. 이젠 후에 들은 얘기지만, 그걸 본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더라.(웃음) 그날 이후 서핑 배워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었다. 자연스럽게 우리 윈드서핑 교육생이 서핑 교육생 1호가 됐고, 서핑 교육이 시작됐다. 송정서핑학교의 시작이었다.



**대단한 에너지와 추진력이다.**

**힘들지는 않았나?**

사실 당시에 윈드서핑이 전 세계적으로 하향세이기도 했고, 솔직히 수지타산이 안 나왔다. 윈드서핑은 워낙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 사람 하나 가르치려면 모터보트에 코치에 장비만 수백만 원짜리가 있어야 된다.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힘들었다. 윈드서핑은 바다에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니 계속 지켜봐야 한다. 그러다 빠지기라도 하면 건지러 가야 하는 거지. 인건비 문제부터 안전문제까지 모든 게 버거웠다. 그런 어려움도 내가 서핑을 만나면서 해결됐다. 운명처럼 서핑에 꽂히고 나서는 교육생들을 윈드서핑에서 서핑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했으니까. 사실 교육생들 사이에서 처음엔 불만도 많았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 멋지게 한번 타는 걸 보고는 다들 자연스럽게 바꾸더라.(웃음) 내가 스키를 20년 정도 탔는데, 항상 스키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어느 정도 탈 수 있게 되면, 알아서 장비 대여하고 실컷 놀다가 다시 반납하잖나. 윈드서핑은 불가능했지만, 서핑은 그게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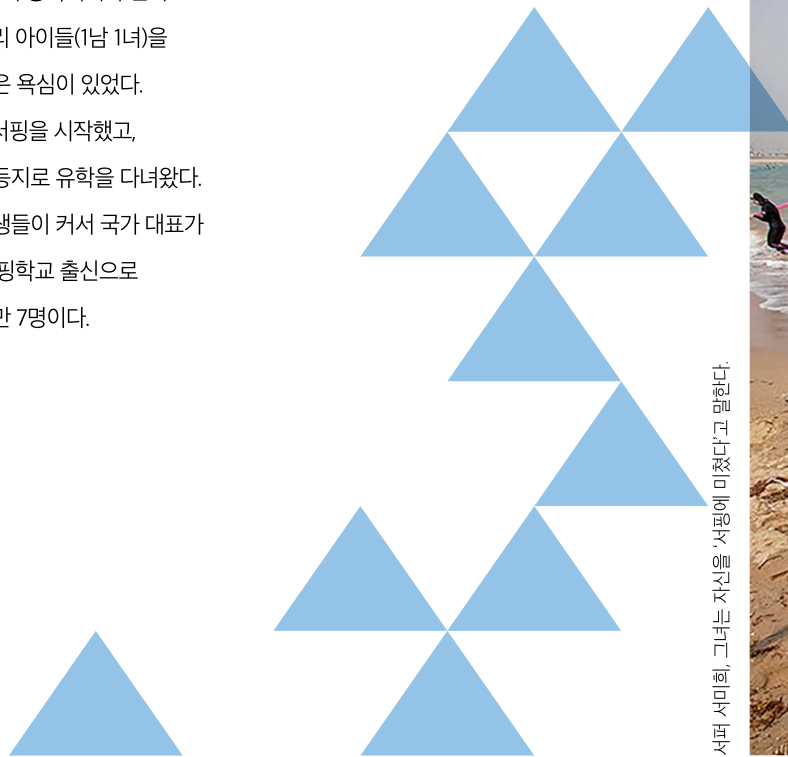
**많은 부산의 바다 중 굳이 송정을 택한 이유는?**

처음 윈드서핑 샅을 시작한 건 광안리였다. 당시에 올림픽 기념으로 백사장에 윈드서핑 보관대 같은 것들을 수영구청에서 만들어 주기도 했고, 그나마 인프라가 가장 좋았으니까. 송정으로 오게 된 건, 당시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53사단 사단장님과과의 인연 때문이었다. 군 내의 윈드서핑 동호회 영향인지 53사단장으로 부임하는 분들은 다들 윈드서핑을 즐기곤 했는데, 96년도에 53사단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바람 좋은 송정으로 오라고 제안하셨다. 송정은 그 당시엔 소위 강촌이었는데, 백사장 내 53사단 막사 옆에 오징어 건조장이 있었다. 원래는 일종의 보급창 같은 곳이었는데, 이후 민간인이 늘어나면서 전세를 내줬다. 그 당시에는 거기가 1년 내내 비어 있다 여름 피서철만 되면 전라도 아주머니 한분이 돛자리 퍼주고 방 빌려주고 하던 곳이었다. 제안을 듣고, 그 방과 앞의 라인을 전세의 전세로 얻어 윈드서핑 샅을 차린 게 시작이었다. 그리고 시작한 지 3년쯤 됐을 때, 터널이 풀리고 앞에 도로가 생긴다고 해변 안쪽 부지를 없애는 바람에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송정은 서핑에 최적화된 곳이다. 수심이 적당하고 조수간만의 차도 적다. 봄, 여름은 남서풍. 가을은 북동풍, 겨울은 북서풍 영향으로 사계절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부산의 바다이기도 하다.



**부산의 다른 바다는 어떤가?**  
해운대의 경우는 이미 해수욕 인구가 너무 많아서 다른 해양스포츠가 불가능하다. 제도적으로도 막아놨고. 송도의 경우는 파도가 없어 서핑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해파리도 너무 많아 카약이나 패들보드를 즐기기에 적당하다. 광안리는 남서풍이 이기대에 막혀 여름에 큰 파도가 없다. 그래서 동력스프츠나 패들보드를 즐기는 것이 좋다. 다대포가 송정과 더불어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부산의 바다다. 다대포는 남풍 영향만 받기 때문에 송정에 비해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기간 자체는 짧은 단점이 있지만, 워낙 파도가 길어 롱라이딩이 가능하다. 다리가 아플 정도로 긴 파도가 온다. 일본 밑으로 큰 기류가 지나가면서 파장을 만들 때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오는 거다. 한 일본 친구가 김해공항에 내리면서 그림 같은 파도를 봤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후에 알고 보니 다대포에 밀려드는 파도를 보고 한 이야기였다.

**서핑이 올림픽 정식종목이 됐다. 서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늘 바래왔다. 서핑은 꼭 올림픽 종목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1남 1녀)을 서핑 국가대표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4살 때부터 서핑을 시작했고, 일찌감치 발리와 뉴질랜드 등지로 유학을 다녀왔다. 무료로 감습해 주던 초등학생들이 커서 국가 대표가 된 케이스까지, 우리 송정서핑학교 출신으로 국가대표 경력을 가진 선수만 7명이다.



서퍼 서미희, 그녀는 자신을 '서퍼'에 미쳤다고 말한다.



서미희 대표의 딸이자 서핑 국가대표 이나라 서퍼. 국내 여성부에서는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한다.

**내년 2020도쿄올림픽부터 정식종목이잖나.**

**부산 송정서핑학교 출신 국가대표가 나오길 기대해 봐도 되나?**

국가 대표가 되었다고 올림픽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기간 안에 전 세계에 유명 대회의 수상실적으로 포인트를 쌓아야 한다. 문제는 이 포인트를 쌓는 데 돈이 엄청 많이 든다는 점이다. 후원이 필요한데, 많은 서퍼들이 후원자가 없어 대회를 많이 못 뛰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호황이었지만, 나도 요사이 서핑 샅 경쟁이 치열해지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을 후원하는 게 여의치 않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요즘 서핑 샅들이 선수를 키워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핑 저변확대를 위해 초보자들도 중요하지만 롤모델을 길러내는 것도 필요하다. 좋은 선수가 많아야 후원자도 생기지 않겠나. 그게 결국 서핑에 대한 관심과 저변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길이다. 그래서 초보자는 물론, 선수를 아우르는 서핑선수촌을 송정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 더 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최근 서핑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생활체육의 영역 안에서 아직 대중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심은 있지만, 망설이는 일반인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 외로 물에 대한 공포가 많다. 그게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아도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껴,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다. 서핑 교육은 발이 닿는 곳에서 이뤄진다. 수영을 못 해도 상관없다.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정월대보름과 그믐 때는 만조 때 큰 파도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수영 못하거나 아직 어린 분들은 간조 때로 시간을 변경해서 교육해 드린다. 얼마 전부터 재능기부 차원에서 복지원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서핑교육을 하고 있다. 어린 친구들이지만 이제는 스스로도 바다와 서핑을 대한다. 서핑은 정말 한번쯤 해볼 만한 스포츠다. 특히 부산의 바다와 더불어 사는 부산사람이라면 한번 해봐야하지 않겠나. 절대 두려움 가질 필요 없으니, 꼭 도전해보시길 권한다.(웃음) 🌊





Quinton Carlin's Daily Life



글 Quinton Carlin (캐나다에서 온 부산너)  
사진 하영문  
번역 김혜민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 이런 일은 다른 도시 혹은 나라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을 거예요.

**"부산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식 바비큐와 친절!"**

부산에서 가장 좋았던 추억 중 하나는 TED X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제가 연사로 나섰던 일이에요. 그건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거든요! 또 OO갈매기 라는 한국식 바비큐 식당 애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행한 국가가 전 세계 35개국에 달하는데, 제가 가본 식당 중 가장 좋아하는 곳이 바로 여기니까요! 너무나 좋아하는 곳이라, 지난 8년간 일주일에 세 번은 꼬박꼬박 가고 있는 것 같네요. 하도 자주 가서, 제가 가게를 먹어 살리고 있다는 생각마저 정도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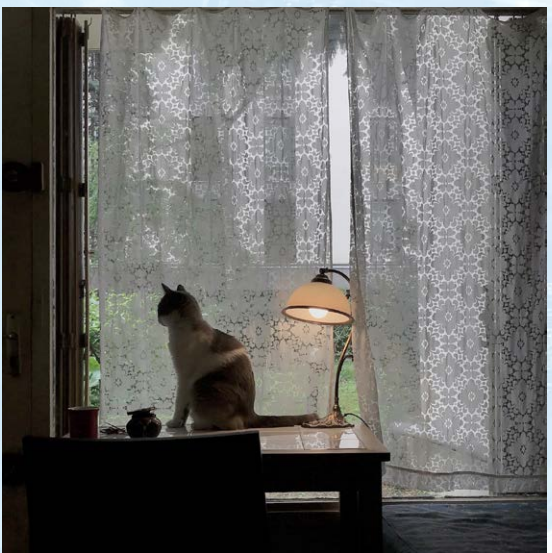
**"부산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정말 멋지죠!"**

처음에는 6개월 정도 머무를 생각으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게 벌써 8년 전인데, 저는 여전히 한국에 살고 있네요. 지금은 부산에 있지만, 당시 거주하던 곳은 서울이었어요. 처음 6개월 정도를 머물렀는데, 솔직히 그때 한국을 떠나려고 했어요. 서울은 그다지 제 맘에 드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과 늘 바쁜 일상, 늦은 밤까지 떠들썩하게 제 거주공간을 괴롭히던 클럽들까지, 정말 모든 게 맘에 들지 않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울엔 해변이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황사로 인해 감염된 뇌 질환을 치료해주시던 안과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부산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눈을 치료 하기에 태양이 많고 깨끗한 부산이 좋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부터 부산이 대체 어떤 곳일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약 세 시간가량 기차를 타고 마침내 해운대 해변에 입성한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던가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 사람인데, 부산은 다양한 해변과 산들, 그리고 다른 곳보다 느긋한 해안지역의 생활방식까지 밴쿠버와 공통분모가 많거든요. 아시아인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구요. (참고로 밴쿠버는 행쿠버라고도 불립니다. 홍콩과 밴쿠버를 합한 단어 인데, 밴쿠버에 아시아 사람이 많이 살아서 저런 별명이 붙었어요.) 부산에 오니 거짓말처럼 모든 게 잘 풀렸어요. 부경대학교를 통해서 늘 꿈꾸던 직업을 갖게 됐고, (캐나다에서 소모되는 비용에 비해)저렴한 비용으로 광안리에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죠. 스쿠터와 서프보드, 스탠드업 패들보드까지 마련한 건 물론이고, 심지어 외국인 선수라고는 오직 저뿐인 남승농구리그에도 가입했다니까요! 캐나다로 돌아가려던 계획이요? (대체 누가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부산에서의 생활은 정말 멋져요. 아침에 일어나 스무디 한 잔을 마시고, 아파트 바로 밖에 있는 바다에 수영이나 서핑을 하러 가요. 그러곤 옷을 차려 입고 스쿠터로 5분 정도 걸리는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4시간. 퇴근 후에는 운동을 하러 가고, 친구들과 함께 저녁으로 한국식 바비큐를 즐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물론 부산에서의 제 생활이 늘 장밋빛으로 물들여있는 것만은 아니죠. 기본적인 언어장벽과 문화의 차이, 향수병과 같은 이방인으로서의 어려움은 저 또한 겪을 수밖에 없었니까요. 음...지금 제 삶을 가장 어렵게 하는 건, 아마도 제 아파트 건물 밖에서 매일 밤 스피커를 사용해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경찰은 그들을 다른 곳으로 쫓을 권리가 없다더군요. 종종 끔찍한 노래들을 들곤 하는데, 그런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의 한결같은 등교길을 12년 동안 걸었다. 눈감고도 오고 가는 동네의 초등학교 외벽을 등지고 다녔었다. 아주 멀리, 가늠도 안 되게 먼 곳에 자리를 틀겠노라고. 그리고 결정은 오로지 나의 몫일 거라고. 선택은 어렵지 않았다. 18세 여고생에게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고르면 되었으니까. 문화와 학문의 빈혈에 내린 처방약은 파리.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모든 이들이 동경하는 도시에서 자아를 예쁘게 꾸며내고 싶은 욕심이었다. 서글픈 노란 장판과 옥상의 물탱크가 없는 곳, 그리고 일직적 유행이 아닌 삶의 동반자로서의 인문학이 함께하는 도시. 무식하면 겁도 없다고, 4년 전 무작정 도착한 파리에서 자리를 잡으려 부단히 애를 썼다. 프랑스를 알기도 전에 한국도 몰랐던 것 성인에게 새로운 언어로, 게다가 내가 자라온 땅에서는 한 번도 고민해본 적 없는 '동양인 여성'으로 산다는 일은 고대했던 선택의 기쁨을 앗아갔다. 뒷걸음질 칠 바에는 뭐다 쓰러지겠다 다짐으로 버텼더니 드디어 이곳의 작은 스튜디오가 지친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집처럼 보인다. 파리 대학에서 꿈꾸던 철학을 공부하며 내 기대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이 정도면 꽤 자랑스러운 나 자신이지만, 이 모든 성취가 단지 부산에서의 20년과 등을 돌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프랑스에서의 전쟁 같은 일상에 심표를 찍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순간이 아니다. 살기도 했지만 여전히 낯선 서울을 가로질러 버스에 올라타 장장 네 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부산 노포동의 고속버스 터미널. 햇빛 속 피어오르는 창가 커튼의 먼지와 퀘퀘한 버스에서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나설 때, 땅에 발을 디디며 폐 속으로 퍼져나가는 부산의 냄새. 그 냄새를 당신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와 이제왔노'라는 통명스럽고 다정한 말을 누군가에게 들은 것만 같아 울지 않으려면 인상을 잔뜩 구겨야만 했다. 되찾은 도시의 리듬과 냄새가 주는 감동에 비하면 터미널의 분식집 어묵국물에 잠긴 물떡은 거들 뿐. 고향이 주는 안도감에 오래도록 어리광을 부리고 싶었고, 동시에 내가 다시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드문 감동을 성실히 몸에 새겼다.

집과 냄새.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생생히 보고 들을 수 있는 오늘날, 내가 가장 신뢰하는 감각이 후각임은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른다. 파리에 머물며 기차여행을 자주 다녔더랬다. 바르셀로나, 프라하, 런던, 암스테르담, 베를린 등 도시의 중심부에서 교통의 주도권을 과시하던 기차역을 나서며 깨닫는다. 도시의 첫인상은 냄새라는 사실. 지울 수 없는 강렬함을 매번 다시 발걸음을 할 때마다 되찾으리라고. 그리고 새로운 바람을 가득 채운 가슴을 안고 파리에 도착하는 순간, 집에 돌아왔다는 공기의 예고를 받는다. 사는 도시의 냄새가 주는 안도감은 그 근원이 다름지언정 모두가 하나씩 가질 법한 장소의 축복이 아닐까. 사실 파리의 냄새가 그리 황홀한 편은 아니다. 흐린 날씨 탓에 습기가 묻은 아스팔트 냄새,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인종의 땀 냄새 혹은 땀집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버터 냄새 그리고 몇 초 전 나를 스쳐지나간 이의 짜릿한 향수 냄새. 시간이 멈춘 듯한 오전, 아직 덥혀지지 않은 파리 시내의 서늘한 대기이거나, 정오의 따갑고 경쾌한 햇빛 냄새 아니면 날이 긴 여름날 저녁 비스듬한 빛이 내리는 나른한 공기의 어루만짐일 수 있다. 이 모든 흔적에 익숙해진 순간부터 나는 파리를 집이라 불렀다.

가장 익숙한 장소와 냄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되찾을 수 없는 것. 그래서 냄새와 집은 닮았다. 부산의 냄새를 내가 원한다고 당장 말할 수 없듯이 내가 사는 파리의 기억 또한 먼 훗날 찾을 길 없이 잊히고 말 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아름다운 두 도시를 집으로 삼았다는 축복을 누렸기 때문이다. 과정을 보태서, 내가 언젠가 눈과 귀를 잃는다 하더라도 부지런히 호흡하는 한 도시를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도시와의 만남은 곧 그곳에서 숨을 쉬었던 기억이 아닐까. 그리고 그 기억에 익숙함을 보태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도시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지속해진다. 🌟

도시의 냄새 그리고 집 : 부산과 파리 사이에서

글·사진 전진 (프랑스로 간 부산너)

나는 부산을 떠났기에 파리에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온 곳을 자주 묻곤 했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품었던 장소로서의 부산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부산엔 말이야, 바다가 있어. 여름엔 너무 덥지도, 겨울엔 너무 춥지도 않지. 물가가 저렴한 편이지만 없는 건 없었어. 도시 오염도 덜한 편이고 큰 영화제도 있단다. 호탕하고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진 그곳의 예술가들을 참 좋아했었지. 날이 풀릴 즈음엔 집을 나섰을 때, 체온과 다르지 않아 살랑이는 대기의 온도에서 황홀한 편안함을 느끼기도 했어. 그러다 향구의 짠내가 그리울 땐 지하철을 타고 바다로 가는 거야. 그러게, 정말 그만한 도시가 없었지. 파리에선 절대로 찾을 수 없는 분위기와 냄새라고 생각해. 그림냐고? 응. 하지만 아쉬움에 뒤만 돌아본다면 미처버리고 말걸. 그래서 파리가 싫냐고? 그건 또 아니야. 단지, 부산과 파리, 두 도시를 집으로 삼을 수 있어 행운이라고 느껴."

부산에서 자랐고 파리에 사는 나는 그 두 도시 사이 어디쯤 동등 떠다니는 듯하다. 내가 보이지 않고 떠다니는 것만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나를 울게 만드는 찰나는





# “상상하는 모든 이야기를 작품 속에 담고 싶다.”

인터뷰 이보라 글·사진 홍슬기

감만창의문화촌 김자옥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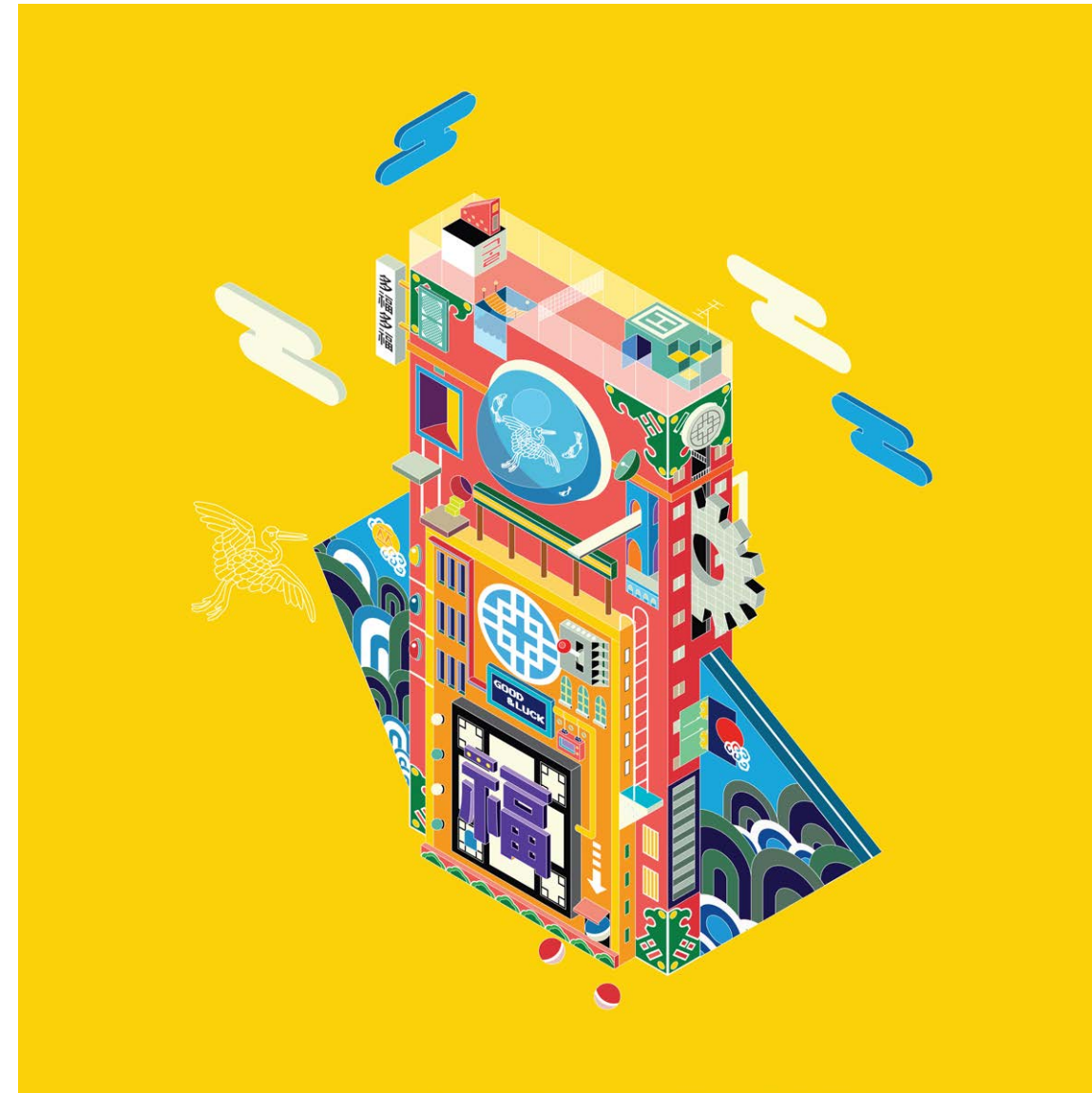
여기저기 쌓인 캔버스를 보니, 설명을 듣지 않아도 얼마나 치열하게 작업하는지 알 것 같다.

청소를 많이 못 해서 너저분하다.(웃음) 공간이 주는 영감이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감만창의문화촌에 입주한 뒤로 나만의 작업공간이 생겼다는 것과 실험적인 작업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특히 이곳은 다양한 예술가의 작업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작품을 보며 배우고 영감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협업을 통해 기존에 시도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도 너무 마음에 든다.

유화부터 일러스트까지 작품 표현기법의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이야기가 잘 담기고 표현되도록 어울리는 표현 방식을 다각도로 구상한다. 과거에 해석이 어려운 현대 미술 전시를 보면서, 관객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시가 얼마나 가치있을까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 그 후로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계층의 관객이 제 작품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추구한다. 그러다 보니 작품마다 유화, 콜라주, 컴퓨터 일러스트 등 다양한 표현기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림체 또한 하나에 얽매이지 않게 됐다. 특정한 표현기법에 얽매지 않으므로써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 작품의 주제도 일상적인 사물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나만의 상상력을 결합해 구현하기 때문에 작품마다 새로운 세상을 구현한다는 기쁨이 있다. 특히 어린 관객들이 저의 작품을 많이 좋아해 준다. 어린이 도서관에서 전시 초창기 와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작품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관객들의 모습을 보며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정말 뿌듯했다.

조금 흐린 오후, 감만창의문화촌 4층의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스르륵- 열리는 문틈 사이로 작품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온다.  
알록달록한 색감과 한화 같은 그림체가 인상적이다.  
천천히 작품을 감상하다 보니,  
작가 특유의 신비적 상상력에 취해 마치 회중시계를 꺼내보는  
토키가 튀어 나올 것만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이 놀라운 상상력의 근원은 무엇인지,  
김자옥 작가에게 직접 들어봤다.



다북다북, 101.6x101.6cm, 2018, digital print on canvas, 김자옥 작가 제공

일상의 사물들을 주제로 잡기 시작한 이유가 있나?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사물들은 어느 곳이나 존재하고, 우리가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들이다. 많은 사물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 태어나고 만들어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 속 사물들에게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사물이 만약 감정을 가진 존재라면 그런 사실에 상처받을 것 같았다. 소외된 모든 사물의 마음을 그림을 통해 알아주고 표현하고 싶었다. 그림 속 세상에서만큼은 특별하고 빛나는 주인공이 된 대상을 바라보며 저 자신을 투영하기도 한다.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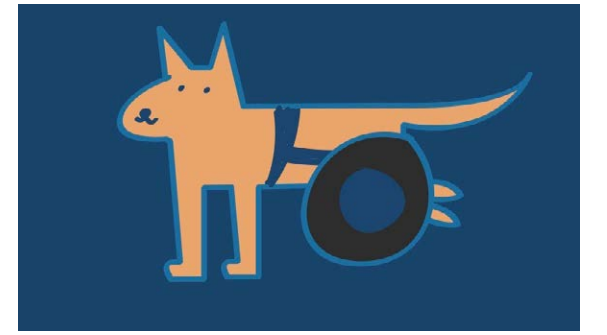
머릿속에 작품을 위한 아이디어 주머니가 따로 있을 것만 같다.

그렇진 않다.(웃음) 하나의 단어와 물건을 종이에 써놓고, 가볍게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생각의 가치를 뿜어 나간다. 후에 마인드맵으로 나온 스토리를 모아서 그림으로 담는다. 또는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여 작품을 만들며 가면서 스토리를 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다북다북이라는 작품은 '북'이라는 주제에 집중하여 작품을 만들며 가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나갔다. 개인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좋아해서 작품 속 사물을 건물이나 기계장치로 표현한 작품이 많다. 딱딱하고 정적인 대상에 움직임과 더하고 그 속에 스토리를 담는 것을 좋아한다. 북조리가 건물과 기계장치를 구현된 것도 그 때문이다. 나는 아무렇게나 쌓인 물건들을 보면서 하나의 마을을 떠올린다. 기질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상상을 즐기는 편이다. 달한 문 뒤편에는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을 것 같아 열어보고 싶다. 미지의 공간에 대한 환상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작품에 영감을 준다.

문화예술가로서의 삶이 힘들텐데,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나.

나보다 뛰어난 모든 작가들의 존재가 동기부여다. 그리고 최근 '한자루'라는 크로키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은 통해 에너지를 얻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 '한자루'는 회사원, 간호사, 디자이너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모델이 되어주고 그림을 그려주는 모임이다. 1분 30초, 3분, 5분 등 정해진 시간 안에 그림을 그려주는데, 시간이 되면 어떻게 그렸든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 다들 부끄러워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어 한다. 그림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 선이 제각각으로 다양하다. 다 다른 선과 그림이지만 말하지 않아도 누가 그렸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 그림이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고 소통하는 느낌이다. 할로윈 때는 다들 분장하고 크로키를 그리기도 했다.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림과 연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모임의 구성원 중 공대생이 한 명 있는데, 처음에는 사람을 그리라고 했더니 졸라맨을 그렸다. 그가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이유가 독일에 유학을 가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선물로 크로키를 그려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림 선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 보겠다는 각오로 온 거다. 그런데 그림에 흥미를 느끼더니,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실력이 일취월장했다. 이제는 해외 유명작가의 아트워크라 해도 믿을 정도다. 최근에는 풍경들도 그려서 올리는데 그와 그의 그림을 보면서 스스로 엄청 반성했다. 사람의 의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새삼 깨달은 거다.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됐다.



클라우드 펀딩을 계획 중인 황진이 캐릭터 일러스트, 김자옥 작가 제공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가로서, 부산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나 느낌이 있다면?

부산은 자연발생적 도시다. 부산사람들은 많은 역사와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의 유행과 현재의 양식이 혼합되어 얽히고 뒤엉킨 공간 속을 살아가고 있다. 여느 계획도시와는 다르다. 흔히 지나치던 문과 창문들이 어느 날 뜬금없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간직한 공간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맞물리면서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준 공간이다. 부산의 알록달록 개성 넘치는 색은 덩이고, 자연이 선물한 바다는 축복이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 비해 확실히 공연의 기회가 적고, 정보의 흐름이 늦고 더딘 건 사실이니까.

대중에게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나?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대중을 소통하게 하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다.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어른들의 동심을 찾아주고 싶고, 아이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싶다.

향후 작품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

최근 다리를 못 쓰게 된 황진이이라는 유기건을 알게 되어 유기묘, 유기견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황진이 같은 친구들의 보호와 치료비 마련을 위해 클라우드 펀딩을 계획 중 이다. 황진이를 캐릭터화 한 유리컵이나 냇지 등의 상품을 만들어 펀딩을 받고, 일정 금액 이상을 펀딩한 사람에게는 반려견 초상화를 서비스 그려주는 프로젝트다. 거기서 발생한 수익은 황진이 같은 친구들을 위해 전액 기부하려고 한다. 그 외의 작품활동도 물론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다. 조바심 내거나 서두르지 않고, 내가 관심 있는 모든 것들을 작품으로 표현해 나가고 싶다. 🐾



# 낮에는 화학연구원으로, 밤에는 수화공연배우로!

## 대현씨의 이중생활

글 권혁제  
사진 유대현 제공

2014년 8월, 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부산 어느 축제의 스태프로 일할 때였다. 무대 뒤에서 수화 공연팀 '조용한 수다'의 보조 업무를 하며 공연단장님 및 공연단원들과 자연스레 대화를 주고받게 됐다. 공연 무대를 생생히 지켜보면서, 문득 "나도 저런 특별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솟구쳤다. 일주일 후, 용기를 내 공연단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주중에는 한 화학회사의 '연구원'으로, 주말에는 무대 위의 '공연 배우'로 그렇게 내 이중생활은 시작됐다.

### "네가 공연을 한다고?"

나를 '연구원 유대현' 혹은 '회사원 유대현'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말마다 공연 무대에 선다는 사실을 밝히면, 평소의 내 조용한 성격 탓인지 대부분 놀라는 눈치다. 늘 실험실에 앉아 시험과 실험을 반복하며 혼자만의 고독에 익숙한 연구원과 끊임없이 감정과 표현을 밖으로 표출하는 공연배우, 너무도 괴리된 두 신분 사이에서 느낄 그들의 당혹감은 그래서 심문 이해가 간다. 그리고 이중생활로 인한 그들의 당혹스러운 시선은 내 삶의 작은 활력과 재미가 된 지 오래다.

사실 예전에는 수화라는 표현방법이 다소 종교적으로 보이기도 했고 흰 장갑을 끼고 잔잔한 노래에 맞춰 공연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조용한 수다의 공연을 관람한 후, 나는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댄스, 발라드, 무용과 어우러진 수화의 매력에 내 편협한 선입견을 산산조각 내버렸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신선한 충격이었다. 초창기에는 무대는 커녕 공연과 길거리가 연습실이자 공연장이었다. 지금도 정기공연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버스킹 형태로 예전보다 활발하게 공연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찾아주시는 덕분에 한 달에 2~3회씩 리허설과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이 없는 날에는 팀원들과 모여 공연 일정과 연출, 아이디어에 대해 회의를 하며 작품을 다듬는다. 단원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조용한 수다팀은 다양한 지역축제의 초청을 받기도 하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가끔 팀원들과 콘서트와 해외공연과 같은 즐거운 상상을 해보기도 하지만 아직은 무대 자체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내 이중생활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과는 별개로, 요즘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근심어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멋있다, 보기 좋다"는 칭찬의 빛 뒤로, "시간이 너무 없어 보인다, 너무 바빠서 만나기 힘들다"는 우려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붙는 식이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소위 '워라밸'에 대한 이야기다. 많은 주변 사람이 "쉬는 시간은 도대체 언제냐"며, 일과 개인 생활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유지할 것을 권한다. 취미가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난처한 경우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회사 업무 시간에 공연과 관련된 일로 통화가 걸려진다거나, 공연을 준비하는 시간에 회사 업무에 관련된 일이 끼어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둘 사이를 딱 잘라 선을 긋거나 하나를 포기할 마음은 없다. 도리어 한 곳에 몰입하다 다른 한 곳으로 잠시 눈을 돌릴 때 영감을 얻거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한다는 점에서 내게는 둘 다 소중하다. 연구원으로서의 성취감과 배우로서 느끼는 행복,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다. 둘 모두에 집중하는 것이 나만의 워라밸, 즉 '유대현식 워라밸'이니까. ☺



# 제2의 인생 바람을 일으키자! 수영구 생활문화연합회 '동풍밴드'

글 이연승 (문화기획자)  
사진 하영문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풍광을 자랑하는 연습실이 있는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를 찾았다. 음악을 즐겨 듣던 고등학교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거의 마치고 60세가 넘어 결성했다는 '동풍밴드'를 만나보기 위해서였다. 연습실에 하나둘씩 들어서는 중후한 인상에 내공이 대단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의외로 꼰한 신인의 자세로 활동하고 있는 밴드였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나 젊었을 때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기도 밴드를 결성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동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즐겁고 생활에 활력이 됩니다."

멤버 대부분의 모교인 동아고등학교의 앞머리에서 '동'을, 나이는 들었지만 제2의 인생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자는 의미에서 '풍'을 붙여 '동풍밴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왜 하필 밴드였을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각자 취미는 있었지만 밴드는 여러 명이 모여 하나를 만들어 가는 팀플레이를 해야 하는 거니까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을 모일 수 있게 만들고, 각 파트의 연주자 하나가 되어야지만 한 곡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매력을 느낍니다. 3년 동안 하면서 젊은 사람들처럼 특출하게 실력이 늘진 않았지만 연습할 때마다 설렘에 두근거립니다. 그런 두근거림이 즐겁고, 음악이 한데 모여 어우러질 때는 희열마저 느껴집니다."

"저희 밴드는 또래 친구들로 결성됐기 때문에 깨질 염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음악만 가지고 모이면 여러 가지 의견 차이 때문에 금방 해체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각자가 원래 무엇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팀 자체가 동기들이니까 결속력 있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장점이고 지금까지 활기차게 할 수 있었던 것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동풍밴드는 일주일에 한 번 연습실에 모여 합주를 한다고 한다. 뒤늦게 밴드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이나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했다.

"주변에서도 제가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크게 놀라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밴드 시작 후 가족들이 가장 큰 팬이고, 모니터도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삼식이(은퇴 후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삼시 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남편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아니니 더욱 좋아합니다."

동풍밴드 멤버  
키보드 김재용, 베이스 전홍규, 기타 한남화, 세컨드기타 윤태경, 보컬 김병만, 드럼 이명수, 보컬 이명진, 테너섹스폰 고수근, 메너저 김준우



10명의 멤버들이 모이면 서로 하고 싶은 음악도 다를 것이고, 생활문화연합회 활동까지 하면 쉽지 않은 양을 것 같았다. 그래도 그들은 한목소리로 끈끈한 우정이 뒷받침되어 함께 하기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그들의 음악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야 할 시기에만 나오는 어떤 힘이 있어 보였다.

"멤버 구성원 일부가 수영구에 살고 있고,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연습실을 쓰면서 우리도 좀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 연합회가 생겨서 당연히 가입을 하게 되었고 창설 멤버가 되었습니다. 연합회의 예술제 참여를 비롯해 다른 동아리들과의 교류를 생각할 때 좋은 기회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밴드는 힘이 좋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감싸고자 모두가 힘차게 연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객들도 함께 들쭉날쭉 거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적 색깔을 말하자면 기본은 락(Rock)이지만, 우리 세대가 좋아하고 즐겨 들었던 7080 팝을 위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공연을 즐기고 있고, 어디든지 어느 세대 앞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안리 바다의 풍경처럼 시원한 바람을 일으킬 동풍밴드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았다.

"아직 자랑할 만한 실력은 아니지만, 계속 잘 다듬어 나가 사회에도 봉사할 수 있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풍밴드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낼 수 있는 날까지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우리를 보며 나이가 들어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합주를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늘 하지만 앞으로 우리 밴드 같은 팀이 많이 생기다 보면 전문가들과 젊은 음악인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취미를 이 나이에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동풍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제2의 인생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합니다." ☺





# 부산지역 생활문화센터 통아보기

생활문화센터 위치 및  
대관 정보 등 자세한 설명은  
QR코드 스캔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13  
연락처 051-257-8038  
운영시간 화요일~토요일 09:00~22:00  
일요일 09:00~18:00  
홈페이지 1918.bscf.or.kr



**충무동 생활문화센터**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48번길 16  
연락처 051-240-6591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초량 생활문화센터**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9번길 30, 초량2동 주민센터 2층  
연락처 051-440-6122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감전 생활문화센터**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시장로56번길 20,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2층  
연락처 051-310-4065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프로그램 운영 일정에 따라 다름)



**40계단문화관 생활문화센터**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 49  
연락처 051-600-4045  
운영시간 화요일~금요일 10:00~18:00  
토요일~일요일 10:00~17:00



**두송 생활문화센터**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 59 (다대4지구 도개동아파트 상가동)  
연락처 051-220-4626  
운영시간 화요일~토요일 10:00~19:00  
홈페이지 blog.naver.com/doosong59



**양정1동 생활문화센터**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06번길 38  
연락처 051-605-6612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금곡 생활문화센터**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66  
연락처 051-309-6262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강강이 생활문화센터**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로27번길 6  
연락처 051-418-1863  
운영시간 화요일~일요일 10:00~18:00  
홈페이지 kangkangee.com



**범일 생활문화센터**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범곡로 14  
연락처 051-636-3201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전포 생활문화센터**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00번길 40  
연락처 051-605-6657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2019년 하반기 조성예정 (7개소)

**수영구**  
망미2동 생활문화센터  
(부산 수영구 구락로81번길 40)  
**동구**  
수정2동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중로11번길 23)  
**매곡지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성남로47번길 13)

**부산진구**  
당감4동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 40)  
**금정구**  
서3동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곡로33번길 9)  
장전1동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335번길 27)

**북구**  
화명2동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양달로 58)

+ 운영시간은 센터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진은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제공 받았습니다.



**동대신3동 생활문화센터**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73번길 92  
연락처 051-240-6446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18:00



**좌천 생활문화센터**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증산서로 18-1  
연락처 010-8514-2687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7:00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연락처 051-610-6071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22:00 / 토요일 09:00~20:00  
휴관일 일요일, 공휴일